

地 域 經 濟 學 의 展 開

鄭 基 俊

<目 次>

- I 序 言
- II 定義上的 諸問題
- III 地域經濟政策
- IV 理論的 基礎
- V 地域經濟學的 接近方法의 類型
- VI 結 言

I. 序 言

새로운 學問의 分野가 짧은 時日內에 크게 發展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分野에 대한 關心을 크게 할 外部的 條件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可能的 것이라고 하겠다. 이 點에서 地域經濟學도 그 例外는 아니다.

地域經濟學(regional economics)은 地域科學(regional science)의 한 部門을 이루는 것으로 地域科學은 地域의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經濟學을 비롯한 地理學 社會學 都市工學 交通工學 財政學 政治學 등을 援用하는 地域分析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地域科學은 그 創始者인 「아이사드」(Walter Isard)教授가 在職하고 있는 美國 「펜실베이니아」大學에 本據를 둔 「地域學會」(Regional Science Association)를 中心으로 하여 第2次大戰後 急速한 發展을 보이고 있으며, 이 學會에서는 學術誌 *Journal of Regional Science* 를 發行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美國內의 數百個의 大學에서는 地域에 관한 研究를 위한 調査 및 教育計劃을 實施하고 있거나 이를 推進하고 있다. 이 地域科學에 관한 關心은 世界各國으로 波及되어 各國에서의 地域科學研究를 討論, 評價 및 增進하기 위하여 많은 國際會議가 열리고 있다.

이 地域科學, 좁게는 地域經濟學은 實用的인 特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國家의 政府 또는 政府의 施策을 補助하는 研究團體의 關心을 끌었으며, 그 중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日本, 「그리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주엘라」, 印度, 「콜롬비

아], 「파키스탄」등의 國家는 自國의 經濟開發, 地域間的 格差, 經濟의 廣域化 및 都市化 등에 다른 諸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地域科學에 대한 큰 關心을 가지고 研究를 進行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一環으로서의 地域開發, 產業立地 都市化등의 問題와 關聯하여 近年에 이에 대한 關心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學問으로서의 地域經濟學이 짧은 時日內에 큰 發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現實의 政策問題에 관한 經濟學者들의 지나치리 만큼 큰 關心과 이에 결들인 일종의 流行的인 要素가 作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도 經濟의 理解와 經濟學의 理論의 대부분이 特定한 政策的 挑戰에 대한 應戰으로서 成立하였음을 想起한다면 어떤 한 分野에 대한 이러한 강한 熱意는 반드시 不幸한 現象이라고 만든 할 수 없을 것이다. 現實問題의 올바른 理解와 解決을 위한 原理와 概念을 찾아내야하는 分野에서는 이것은 學問의 進歩의 本質이며 不可缺한 附隨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地域經濟學의 學問의 發展을 研究하는 데는 이 發展에 대하여 刺戟劑가 되었던 政策的 諸問題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地域經濟學에 대한 發展의 刺戟劑가 무엇이었는가를 確認하고 理解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 學問의 最近의 그러한 急速한 發展을 모두 說明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地域經濟學이 그렇게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一般經濟學에서의 理論的 發展 특히 經濟의 諸部門間的 相互依存體系에 관련된 理論의 發展이 先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地域經濟學은 最近에 開發된 概念의 分析道具를 應用해 보고자 하는 많은 經濟學者들의 欲望과 地域에 관련된 諸問題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分析的인 解答을 구하고자 하는 政策樹立者들의 欲望이 結合되어 큰 發展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地域經濟學이 무엇에 의해 刺戟을 받았는지 또 어떤 理論의 基礎위에 서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意味있는 論識가 展開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學問이 엄밀히 말하여 어떤 內容으로 構成되는가에 관한 明確한 定義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定義에 따른 諸問題를 우선 檢討하고 다음에 刺戟劑의 役割을 한 政策問題, 一般經濟學에서 밀어온 理論의 基礎를 다루고 다음 地域經濟學에 대한 相異한 接近方法을 「메이어」(J. R. Meyer)⁽¹⁾ 및 「부드빌」(J. R. Boudeville)⁽²⁾을 中心으로 檢討하고 끝으로 약간의 評價

(1) John R. Meyer, "Regioal Economics: A Surve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also in *Surveys of Economic Theory*, Vol. II *Growth and Development* (St. Martin's Press 1966), pp. 240-271

(2) J. R. Boudeville, *Problems of Regional Economic Planning*,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6).

및 展望을 試圖할 것이다.

II. 定義上的 諸問題

地域經濟學을 定義하려고 하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을 特定한 地理的 領域에서의 經濟的 諸問題의 分析 및 解決에 알맞도록 縮小시킨 經濟學 全般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地域經濟學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데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수 있다. 地域經濟學은 그 目標의 選擇에 있어서 野心的이며, 또 특히 實用主義的인 性格이 強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地域經濟學을 廣義로 해석하여 經濟學뿐만 아니라 地域問題와 관련되는 地理學 社會學 人口學 歷史學등을 모두 포괄한 綜合的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地域科學과 같은 內容을 가지는 것이며 地域分析(regional analysis)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그 例로 「펄로프」(H. S. Perloff)의 한 報告書⁽³⁾의 內容을 보면 (1) 物理的 要素와 自然資源, (2) 人口와 人間生態, (3) 地域經濟開發, (4) 首都研究와 首都計劃, (5) 地域의 歷史, 文學 및 社會文化的 要素, (6) 地域分析의 方法과 手法, (7) 綜合的 地域研究 등으로 대단히 다채롭다.

「아이사드」는 地域分析이 解決해야 할 問題를 列擧함으로써 이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⁴⁾.

分析者는 한 地域을 관찰할 때 수많은 問題에 直面하여 좀 당황하게 된다. 한 問題는 個別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稼動하여 그 地域에서 效率的으로 또 有利하게 運用될 수 있는 產業이 어떤 것인가를 識別하는 일일 것이다. 그와 關聯되는 또 하나의 問題는 그 地域住民의 福祉를 增進시켜 그 人當 所得을 올리며, 所得分配을 보다 公平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補助的인 問題로는 地域의 所得과 業績의 測定문제이다. 또 다른 問題는 全國 및 世界의 景氣變動에 너무나 敏感하고 주로 낮고 成長速度가 느린 斜陽的인 產業만으로 構成된 產業構成을 改하는 問題일 것이다. 즉 產業多樣化의 문제이다. 끝으로 言及될 수 있는 세계의 問題는 内部的으로 矛盾이 없는 여러 地域으로 構成된 한 體系의 部分으로서의 그 地域의 產業開發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긴급하고 또 많은 地域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넘쳐지 못하게 賦存하는 資源을 가장 잘 利用할 수 있는 方法을 研究하는 問題이다.

「아이사드」의 이 規定은 正常的으로 經濟學者들이 經濟的인 問題로 認識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며, 이는 地域經濟學이 그 內容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3) H. S. Perloff, *Regional Studies at U.S. Universities: A Survey of Regionally Oriented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Activities* (Washington D.C. 1957.)

(4) W. Isar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New York 1960.) p. 413.

地域經濟學의 範圍를 더욱 限定해 본다면, 固有한 概念的 特徵을 갖는 地域分析의 問題와 一般經濟理論과 地域經濟學 사이에서도 특히 큰 相互關聯이 있는 特定分野만을 그 對象으로 制限할 수 있을 것이다.

概念的으로 固有한 問題들이란 그 性格으로 볼 때 주로 經驗的인 것이 많으며, 「地域」의 概念을 定義하는 데서 直面하게 되는 難點들을 中心으로 하게 된다. 地域을 定義하는 데는 세계의 相異한 接近方法이 있다. 그 첫째는 「同質性」으로, 物理的 經濟的 社會的 또는 다른 特徵들의 觀點에서 地域을 定義하는 것으로 이를 同質地域(homogeneous region)이라고 한다.⁽⁵⁾ 그 둘째는 「分極性」으로, 보통 어떤 中心的인 都市를 極으로 하여 形成되는 結節 또는 分極을 地域定義의 基礎로 삼는 것으로 이를 結節地域(nodal region) 또는 分極地域(polarized region)이라고 한다⁽⁶⁾. 그 셋째는 「計劃」 또는 「政策志向的」인 것으로 特定開發對象地域과 政策決定을 有效하게 할 可用政治機構간의 行政的 結合에 의해 地域을 定義하는 것이며, 이를 計劃地域(programming region)⁽⁷⁾이라고 한다. 물론 實際로 地域이 定義될 때는 이 세계의 基本的 理念型에 따르는 경우보다는 그 세계의 妥協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더욱이 이 세계의 地域類型의 定義는 서로 背反的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모든 地域分類方法은 단순히 同質性의 基準의 變化形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同質性이 追求되는가 하는 點만이 다를 뿐이다. 그리하여 計劃地域 또는 政策地域이라고 하는 것은 한 特定한 政府 또는 行政機關의 管轄아래 들어간다는 점에서 同質的이며, 結節地域은 機能的인 意味에서 한 特定한 中心에 從屬된 地域이라는 點에서 同質的이다. 地理的 또는 資源의 面등 物理的인 特性에서 同質的일 수가 있고 經濟的 社會的 類似性에서 同質的일 수도 있다. 이처럼 統計數字의 編成으로 나타내지는 同質性은 實際로 地域境界를 劃定할 때 그 決定因子가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地域經濟學의 純粹理論的 내지 概念的 意味에서의 가장 흥미있는 成果는 相異한 次元의 同質性의 尺度가 있을 때 同質性의 測定指標을 어떻게 定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해구드」(M. J. Hagood)는 美國의 農業 및 人口에 관한 資料에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의 統

(5) 「부드빌」은 「地域」(region)과 「空間」(space)을 엄격히 區別한다. 同質地域을 同質性을 가진 連續的인 局地化된 領域을 말하며, 同質空間은 連結되어 있을 必要가 없다. 예컨대 「프랑스」의 「릴」地方과 「마르세유」地方은 人當所得 水準이 다같이 높다는 점에서 同質的이나 그 中間에는 所得水準이 낮은 地方이 끼어 있기 때문에 連結이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릴」과 「마르세유」는 同質空間을 이루나 同質地域은 될 수 없다. (Boudeville, *op. cit.*, p. 3 參照)

(6) 分極地域의 概念은 都市의 構造에서 典型的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大都市는 衛星小都市들을 갖고 衛星小都市는 衛星村落을 갖는등 階層性을 그 內部的 特徵으로 한다.

(7) 우리나라의 各種特定開發地域이 이 概念에 類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計的方法을 適用하여 地域을 劃定하는 實驗을 하였으며⁽⁸⁾ 그는 이 過程에서 우연히 統計의 標本抽出에 있어서의 層化的 客觀的方法을 展開할 수 있었다.

이 方法은 몇개의 경우에 適用되기도 하였으나 一般的인 實用性은 아직 認定을 받고 있지 못하다.

地域經濟學의 實用主義的이며 問題解決志向의 性格을 強調한 나머지 「피셔」(Joseph Fisher)는 地域의 概念 가운데서 가장 有用한 것은 그 地域을 現在の 經濟狀態에서 미리 定해진 經濟的 目標로 향하는 政策, 計劃 및 行動의 開發에 力點을 두는 이른바 經濟開發地域(economic development region)의 概念이라고 말하고 있다. 地域에 관한 定義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貢獻을 한 사람의 하나인 「부드빌」도 이와 비슷한 見解를 가지고 있으나 그는 結節地域이 또한 政策目的을 위하여 有用하다는 점도 示唆하고 있다.

地域의 定義에 관한 문제는 地域所得과 生産物計定을 推計하려 하는 경우에 극히 重要하게 된다. 地域所得의 推計問題는 政策目標가 人當所得 또는 生産水準으로 策定되기 때문에 이의 測定이 效果判定을 위하여 政策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이는 결코 全國의 國民所得推計를 단순히 縮小한 것 이상의 여러가지 相異한 面을 內包하고 있다. 사실 地域所得의 推定을 올바르게 하려면 全國의 경우와는 다른 새로운 接近方法을 써서 地方別로 상세하게 나온 統計資料를 가지고 推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豫算을 必要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다 쉽게 利用할 수 있는 國民所得推計로부터 地域所得의 推計를 얻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다.

地域所得推計가 全國所得推計와 크게 다른 점은 地域經濟가 全國의 경우보다 對外去來에 더 크게 依存하고 있고 또 보다 널리 開放的이라는 單純한 事實에 基因하는 바가 많다. 居住地와 다른 地域에 있는 職場으로의 通勤者, 全國的인 規模의 會社의 所得發生 地域과 所有權이 속하는 地域등은 그 典型的인 例이다. 이 밖에도 많은 統計가 全國的인 規模로는 利用可能하나 地域別로는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地域所得推計에 있어서는 地域의 特殊性和 可用統計資料를 감안하여 가장 合理的인 方法으로 이 難點들을 解決해 나가게 된다.

地域의 定義의 諸問題에서 地域經濟學이 一般經濟學에서는 當面하지 못하는 特有的 要素를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나, 이것이 地域經濟學을 다른 것과 區別되게 하는 本體를 주는

(8) M. J. Hagood, "Statistical Methods for Delineation of Regions Applied to Data on Agriculture and Population," *Social Forces* (March 1943), pp. 287-297.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대신 地域經濟學의 本體를 特殊한 概念的인 力點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地域經濟學은 다른 어느 經濟理論보다도 立地理論과 國際貿易理論을 더욱 많이 授用하고 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것은 立地理論이나 國際貿易理論이 모두 地域間的 經濟的 關係를 強調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經濟學의 창시자인 「아이사드」는 立地理論과 國際貿易論을 結合함으로써 傳統的인 國際貿易理論의 內在的인 失敗라고 보는 것, 즉 國際貿易理論이 空間的 分離를 克服하는데 드는 費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修正하려는 데 큰 노력을 바쳤다⁽¹⁰⁾.

立地問題의 면을 強調하여 地域經濟學을 「空間的 分離의 經濟學」(economics of spatial separ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定義는 地域經濟學에서 다루는 政策問題의 範圍에 비추어 볼때 너무 制限된 定義라는 느낌이 든다. 또 資源 특히 勞動의 地域間的 移動이 어렵다는 點을 強調하여 「資源不移動性的 經濟學」(economics of resource immobility)이란 말을 쓰고 있는바, 이는 地域經濟學을 完全히 包括하는 것은 못되지만 꽤 正確한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1950年 以前에는 地域經濟學이 景氣變動理論과 그 分析에 關聯되어 使用되기도 하였다. 즉 景氣變動의 地域間的 傳播 및 移動에 관련된 問題가 地域經濟研究의 主關心事였다. 그러나 現在에는 워니워니해도 靜態條件下에서의 極大化에 力點을 두는 研究가 地域經濟學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地域經濟政策의 諸問題

靜態的인 極大化問題에 큰 力點을 두고 있는 地域分析은 과거에는 절망적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政策의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큰 業績을 쌓았다. 1930年代에 시작된 TVA의 目的을 향한 成功은 地域經濟學의 應用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美國에서는 南部地方, 「뉴잉글랜드」地方, 「로키」山脈地方, 高地中西部地方에 대한 활발한 研究가 進行되어 落後된 地域의 經濟進步率을 적어도 餘他地域과 均衡을 이루도록 끌어올리려는 計劃을 짜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地域經濟學에 대한 관심은 거의 同一한 動機를 가지고 있다.

(9) 地域經濟學과 國際經濟學의 共通的인 重要한 特徵은 經濟分析의 다른 分野에서의 거의 모든 要素를 섭취하여 이를 綜合하려는 傾向이 있는 點이라고 볼 수 있다.

(10) 그의 著書 *Location and Space Economy* (New York, 1956)와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New York, 1960)는 그 結晶이라고 볼 수 있다.

急速한 經濟發展을 경험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 産業化되어가는 都市地域과 그 밖의 地域間에 經濟水準의 格差가 대단히 날카로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른바 經濟的 二重構造에 의한 政治的 緊張을 완화하기 위하여 特別한 地域開發計劃을 推進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南部 「메쪼지오르노」(Mezzogiorno)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努力, 「베네주엘라」의 「구아야나」(Guayana), 「브라질」의 「아마조니아」北部,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Patagonia), 「칠레」의 「아이젠」地方(Aisen Province)등의 開發은 바로 經濟的으로 落後된 地域의 福祉를 增進시킴으로써 이러한 政治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努力의 例이다.

地域間的 開發의 不均衡을 是正하여야 하는 問題는 先進國의 경우나 後進國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美國의 「버지니아」問題, 「프랑스」의 「브리타니」問題, 英國의 「글라스고」問題가 그러한 部類에 속한다.

都市問題와 都市分析은 美國에서 地域分析에 있어서의 經驗的 研究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州間的 高速道路計劃에 있어서 道路建設과 관련하여 相當額의 調查研究活動을 위한 基金을 策定하도록 되어있는 故로 이 方面의 研究를 위한 財政이 豊富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地域研究努力의 方向에 흥미있는 效果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 高速道路計劃下에서 支出되는 調查研究費는 주로 都市交通의 推定과 豫測에 관계된 있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方法이 採用되었다. 첫째는 인터뷰에 의한 方法이다. 즉 인터뷰에 의하여 出發地, 目的地, 旅行目的, 使用된 交通手段의 種類등이 調查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都市地域內的 相異한 地點에서의 高速道路에 대한 需要의 水準을 推定하여 새로운 輸送能力에 대한 必要度를 決定함으로써 輸送能力을 가장 有效하게 配置하려는 것이 目的이었다.

이러한 인터뷰 方法은 概念的으로나 經驗的으로나 經濟學者들에게 흥미있는 問題를 提起하지 못하는 것이 事實이며 또 이 方法은 엄청나게 費用이 많이 들 뿐 아니라 全數調查를 完全히 하기란 거의 不可能하였다. 이 缺點을 補充하는 方法으로 使用되는 것이 重力模型(Gravity model)이다. 重力模型은 物理學에서의 萬有引力의 模型을 社會現象에 適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¹¹⁾, 이를 둘러싸고 많은 論爭이 있다. 交通量分析에 있어서의 重

(11) 重力模型은 「레이리」의 法則(Reilly's law)라고도 부른다. 두 地點의 「質量」을 各各 M_1, M_2 그 사이의 「거리」를 d 라하면 그 두 地點間的 交通量 F 는 $M_1 \times M_2$ 에 比例하고 또 $(1/d)^\alpha$ 에 比例한다고 보는 것이다(α 는 常數). 그리하여 一般的으로

$$F = k \frac{M_1 M_2}{d^\alpha}$$

力模型에 의하면, 두 地點사이의 交通量은 各地點의 「質量」에 比例하며 그 두 地點사이의 旅行에 作用하는 「摩擦」에 反比例한다고 假定되고 있다. 이 摩擦은 거리, 時間, 費用 기타로 測定되고 質量은 人口, 自動車保有者, 購買力, 有效需要 또는 「潛在的인」 産業의 「牽引力」등의 여러가지로 定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重力模型이 擴張됨으로써 여러가지 經驗的 흥미와 重要性이 있는 經濟的 問題가 提起되었으며, 이에 따라 都市交通量分析에 대한 重力模型의 應用을 改善하고 擴張하는 努力이 都市交通研究에 從事한 經濟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어떤 一定한 經濟的 合理性의 코려에 基礎하여 住居가 決定된다는 假定아래 將來의 人口分布와 그에 따른 交通에 대한 需要를 豫測하려는 시도는 革命的이고 實驗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현재 都市의 交通을 計劃함에 있어서 經濟學者와 地域經濟學이 이에 깊이 關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都市問題에 關한 經濟學者 및 地域經濟學이 갖는 觀心의 對象은 물론 交通問題에만 局限하는 것이 아니다. 都市의 交通과, 土地利用과, 人口成長類型과 그리고 産業의 發展一般과의 사이의 相互依存關係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都市에 關한 純粹經濟的인 研究가 점점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都市地域의 交通문제뿐 아니라 넓은 地域에 걸친 交通問題 또한 地域經濟學에 좋은 刺戟劑가 되었다.

一般的으로 地域經濟學은 많은 機關과 政府가 要請하는 經濟計劃問題에 適用할 수 있는 道具를 開發시켜 왔으며, 地域經濟學의 큰 힘과 매력은 그 實用性 및 經濟的으로 어려운 分析을 수행하기 위하여 理論과 資料를 綜合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理論的 基礎

地域經濟學이 理論과 經驗主義의 綜合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事實은 그 理論的 基礎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理論的 基礎는 1940年代以後 一般經濟學에서 發展된 것을 借用한 것인데 이것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立地理論, (2) 國際間 및 地域間的 乘數理論 (3) 産業聯關的 投入產出分析 및 (4) 數理計劃法이 그것이다.

1. 立地理論

立地理論은 「뢰쉬」(A. Lösch)의 理論을 除外하고는 모두 分明히 經驗的 存在可能性이

로 쓸 수 있다(k 는 常數). 指數 α 는 交通量의 거리彈力性이다. 이 模型은 交通量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情報模型(information model)으로 地域經濟學에서 應用範圍가 넓다.

라는 重要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쉬」의 立地理論은⁽¹²⁾ 高度로 理想化 '形式化' 되었을 뿐 아니라 直接的인 經驗的 存在可能性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地域經濟學에서 立地理論이 現在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地域經濟學이라는 새로운 分野의 本體를 찾는 중에 立地理論이 이를 滿足시켜 주기 때문인 것으로 一部는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一般經濟學에서 지금까지 看過되어온 立地理論을 크게 導入함으로써 地域經濟學은 다른 經濟學과 區別되는 學問이 될 수 있었다. 現在立地理論도 「외쉬」의 理論보다 「베버」(A. Weber)의 理論이⁽¹³⁾ 보다 實用性을 가진 것으로 認定되는데, 「베버」의 理論은 「후버」(C. E. M. Hoover)와 「아이사드」에 의해 더욱 發展되었으며, 「외쉬」의 理論보다 論理的은 못되나 折衷的이고 一般的이다.

2. 地域間乘數理論

經濟基地(economic base)의 概念과 함께 地域經濟學에 밀접히 關係되는 것이 地域間乘數理論이다.

經濟基地-乘數概念은 일찌기 1937년에 都市經濟研究의 開拓者 「호이트」(Homer Hoyt)가 처음 使用하였는데 그 本質은 經濟學의 다른 分野에서 使用되는 類似概念과 같다. 그 첫째 段階는 分析하는 經濟의 外部에서 決定되는 즉 外生的인 活動을 確定하는 일이다. 즉 「經濟基地」란 一次的으로 그 地域으로부터 다른 地域으로의 輸出에 從事하는 產業의 群을 말한다. 그리하여 經驗的인 乘數는 그 地域의 總經濟活動과 輸入活動間의 歷史的 關係를 觀察함으로써 決定된다. 그리하여 總經濟活動을 豫測하려면 經濟基地의 推定值에 이 乘數를 適用하여 求한다⁽¹⁴⁾.

(12) 「외쉬」의 著書 *Die rä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 (Gustav Fischer Verlag, Jena)가 發刊된 것은 1940(再版은 1944)年이나 이것이 英語로 번역되어 널리 紹介되기는 *The Economics of Location* (Yale University Press)의 1954年이다.

(13) Alfred Weber, *Über den Standort der Industrien, Erster Teil, Reine Theorie des Standorts* (Tübingen, 1909); 英文版,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Chicago, 1928), 日文版, 『工業立地論』(東京 大明堂, 1965).

(14) 經濟基地乘數概念은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地域의 總雇傭을 E , 地方産業의 雇傭을 L , 輸出産業의 雇傭을 X 라 하면

$$E = L + X \quad (1)$$

이다. 여기서 L 이 E 의 一定比率이라는 先驗的 假定을 하면

$$L = KE \quad (\text{但 } K \text{는 一定}) \quad (2)$$

로 쓸 수 있으며, 따라서

$$E = KE + X \quad (3)$$

$$E = (1 - K)^{-1} X \quad (4)$$

가 된다. 이것은 「케인즈」나 「레온티에프」의 乘數概念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式 (2)의 假定의 妥當性여부이다.

이 節次에서는 물론 經濟基地의 크기를 推定하는 面이 가장 重要한데, 어떤 特定地域의 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고자 하는 特別한 意圖에서 새로운 輸出産業으로서 經濟적으로 殘存하여 그 地域의 經濟基地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推定하는 것이 重要한 경우가 많다. 어떤 輸出可能性을 確定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比較生産費分析을 地域間에 實施한다.

國際貿易理論에서의 그것과 같은 생각에 基礎하는 것이지만 比較生産分析이 地域經濟學에 適用될 경우에는 生産費의 比較가 內部的 比較優位를 計算해 보지않고 直接 生産費 絶對額을 比較한다는 點에서 國際貿易理論에서와는 다르다. 그리하여 그것을 그 地域에서 特定市場에 特定生産物을 供給하는데 드는 生産費와 다른 地域에서 그 市場에 供給하는데 드는 生産費를 차례로 比較하여 보는 것에 歸着한다.

이 比較生産費分析은 다른 部分分析과 마찬가지로 經濟적으로 單純하다는 것이 큰 長點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複雜한 相互依存의 狀況에서 單純化가 가지는 모든 部分分析에서의 弱點을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規模의 經濟, 供給函數의 非彈力性으로 인한 要素價格의 變動, 都市化등으로 인한 外部經濟등을 無視하기 쉽다.

比較生産費分析의 缺點을 是正하기 위해 開發된 것이 「産業複合體分析」(industrial complex analysis)이다. 産業複合體分析은 「아이사드」와 「스쿨러」(E. W. Schooler) 및 「빅토리에즈」(T. Victoriez)에 의해 發展되었는데 그것은 投入產出行列을 利用하여 産業群 또는 産業複合體를 찾아내고⁽¹⁵⁾ 이를 基礎로 해서 比較生産費分析을 하며, 또 規模의 經濟등의 檢證에 力點을 둠으로써 比較生産費分析에서의 관심의 대상의 범위를 擴張하려는 試圖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地域經濟學의 經濟基地 또는 乘數分析에 대한 가장 큰 批判은 經濟基地를 推定하는 方法으로서의 比較生産分析의 妥當性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外生的이나 하는 單純한 定義의 문제이었다. 基地分析은 産業을 그 輸出活動의 水準에 따라 配列하면 不連續性 또는 罅이 發見될 것을 想定하는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配列은 本質적으로 連續的임이 判明되었다. 또 輸出産業이 쉽게 識別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乘數가 時間에 따라 一定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많은 批判이 이 乘數의 安定性에 대하여 加해졌던 것이다.

經濟基地概念은 이처럼 많은 缺陷과 批判을 받고 있지만, 이 概念처럼 널리 應用된 것

(15) 예컨대 宗主産業과 그 前方連鎖效果에 의한 衛星産業들은 産業複合體를 形成한다.

은 드물 것이다. 實際의 問題로서는 이 概念의 使用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現實 經濟의 相互依存性이 얼마만큼 고려될 것인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많은 弱點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經濟基地概念과 外生性의 概念에 대신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投入產出分析

地域經濟學에서 매우 重要的한 세 번째의 理論的 基礎인 投入產出分析과 그에 밀접히 관련되는 行列乘數概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模型에서도 最終 需要로 들어오는 外生的인 것을 區別할 必要性이 있다. 地域間 產業聯關的 投入產出分析의 理想型은 產業別 地域別로 識別된 投入產出係數의 行列로 構成된다. 그리하여 產業의 數가 50개이고 地域의 數가 5개라면 그 理想型의 行列은 62,500의 係數를 가지며 이는 2500 (50×50)개의 係數를 가지는 25개의 部分行列로 分解할 수 있다. 이때 각 地域에 대해서 5개의 行列이 있겠는데 그 중 하나는 그 地域 자체의 產業聯關關係를 나타내며 나머지 넷은 다른 地域들과의 產業別 交易關係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型의 表는 資料의 不足때문에 實現性이 없다. 그러므로 地域投入產出分析을 하려 할 때는 이러한 資料의 不足에 직면하여 그 理想型의 表를 어떤 方法으로 單純化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單純化의 方法으로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각 地域을 거의 獨立的인 經濟單位로 생각하여 全國經濟에 대한 投入產出表에서 처럼 모든 他地域들과의 流出入을 輸出入部門에 統合하는 것이다.

둘째로 위의 方法과는 正反對로 產業聯關關係는 完全히 무시하고 地域間的 交易關係에만 關心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로 各地域內的 輸入類型의 產業間差異를 무시하고 各產業의 地域間貿易係數를 하나의 投入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各地域別 產業別로 相異한 輸入投入係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各產業의 各地域에 대한 貿易係數가 하나씩 있게 되어 앞의 例에 의하면 各地域別의 50×50 部分行列이 50개의 元을 가진 하나의 벡터로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單純化의 方法은 可用資料와 分析目的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投入產出分析은 많은 重要하고 論爭거리가 될 수 있는 假定위에 成立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批判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投入產出分析을 하는 사람이나 그 批判者나 그 弱點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地域投入產出分析은 全國의 投入產出分析이 가지는 問題點을 가지는 外에 그 자체의 問題點이 있다. 즉 地域間貿易係數는 產業聯關係數보다 不安定하다.

이처럼 많은 問題點과 難點이 있으나 投入產出分析은 矛盾없는 檢證과 組織的인 體系를 마련해 준다는 點에서 다른 어떤 手法도 가질 수 없는 現實分析의 道具가 되고 있다. 또 그 精密性을 과신한 나머지 投入產出分析을 機械的으로 適用하다가 全體的으로 不正確한 推定值를 얻고 말 危險性도 存在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分析이 가지는 內在的인 弱點이라고는 볼 수 없다. 끝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經濟基地分析이나 投入產出分析이 이처럼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지만 現在로서는 地域經濟學에서 實際로 經驗的인 作業을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依存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될 分析道具라는 점이다.

4. 數理計劃法

현대의 地域經濟學에서 使用하는 네번째의 理論的 分析道具인 數理計劃은, 經濟的 合理性이 꽤 잘 통한다고 믿는다면 엄밀히 概念的 觀點에서 볼 때 가장 좋은 道具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개의 重要한 handicaps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可用資料의 問題이다. 즉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適用하려면 必要한 資料의 量은 엄청나게 많아야 하며, 投入產出分析에서의 所要量보다도 훨씬 더 많다. 둘째는 經濟的 合理性이라는 것은 現在 쓸 수 있는 計劃模型속에 쉽게 導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못된다는 점이다. 地域研究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手法를 使用한 가장 野心的인 努力은 美國의 「켄-저지」 研究에서의 住宅立地 模型이 있으며 여기서도 앞에서 말한 두개의 難點이 그대로 經驗되었다.

數理計劃手法를 實際의 立地問題에 適用한다는 것은 극히 뛰어난 試圖이며,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地域經濟學에서 가장 野心的인 努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與件으로서 그러한 試圖가 成功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 地域經濟學의 接近方法의 類型

地域經濟學에 대한 接近方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歷史的-行動主義的 特性에 力點를 두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數量化, 豫測 및 論理的으로 엄밀한 分析 體系의 構築을 志向하는 方法이다. 물론 이러한 區分은 어느 정도 恣意的인 점이 없지 않다. 歷史的-行動主義的 性向을 가진 사람도 數量的 豫測을 試圖할 것이며, 分析的 數量的 接近을 하는 사람도 그 밑에 깔린 行動主義的 類型을 理解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렷한 強調上의 差異를 볼 수 있다. 예컨대 歷史的-行動主義的 性向을 가진 사

람들은 趨勢와 進化類型의 分析을 強調한다. 그들은 統計資料의 밑바닥을 파서 특히 構造와 行爲에 重大한 變革을 야기하는 動機를 理解하고자 한다. 그들은 連續性보다는 不連續的인 構造的인 變革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들은 이 構造的 變革으로 말미암아 豫測이 危險해지고 不確實해 진다해도 또는 그들의 豫測이 形式的으로 엄밀하고 일관성 있고 또 세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데 대해서는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豫測한 것이 現在의 行動趨勢에 비추어 그럴듯 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形式的인 分析的 研究에서 잘 다루지 않는 企業家職能이라든지 市場構造라든지 또는 外部經濟라든지 하는 것에 力點을 둔다.

끝으로 그들은 분명히 보잘 것 없는 動態的인 分析을 위하여 기꺼이 훌륭한 靜態的인 分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數量的-分析的인 性向을 가진 사람들은 形式的인 構造 및 無矛盾性을 강조한다. 構造變動의 不連續性에 당면하여 그들은 그것이 例外的인 事象임을 證明함으로써 자기들이 構築한 模型의 構造파라미터를 옹호하려 든다. 즉 그들은 꼭 필요할 때 한해서만 構造의 變化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보다 세련된 靜態模型을 얻기 위하여 動態的인 面을 어느정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아이사드」는 이와 같은 性質을 가진 投入產出分析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直觀과 六感을 投入產出分析에 結合하여 豫測을 하면 直觀과 六感만으로 豫測한 것보다 못지 않은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⁶⁾

接近方法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差異는 어느정도 政策志向에 있어서의 差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으로 一部分 說明이 된다. 行動主義者들은 現存機構內에서 政策問題를 하나씩 하나씩 調整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健全한 方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野心的인 目標도 세우지 않으며, 長期計劃보다는 短期的인 政策의 한 系列로서 생각 한다.

이와는 正反對로 보다 形式的인 展望을 가진 사람들은 綜合的인 開發計劃을 수립하는 方向으로 생각한다. 大規模의 長期的인 經濟問題를 안고 있는 그리고 世界的 開發金融界에서 開發投資를 위한 大規模의 借款을 얻어야 하는 後進國에서 이 接近方法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現在의 技術能力을 最大로 利用하여 綜合的인 長期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극히 當然하며, 資本豫算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 不可缺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드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W. Isar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New York 1960), p. 341.

地域經濟學은 決定의 科學이다. 그것은 目標의 決定, 手段의 使用 및 이 目標을 達成하는 가장 効果인 道具의 選擇을 必要로 한다…… 經濟의 趨勢들간의 相互關係 및 手段과 目標의 結合關係를 밝히는 問題는 새로운 手法들에 익숙한 地域의 驅使力의 存在를 要求한다.…… 뛰어난 地域의 大事業들이 現代인 手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행된 것은 사실이다. 「로마」의 導水管, 「고딕」式 聖堂들은 建築術에서 妙技라고 할 수 있는 材料의 強度의 計算을 기다려서 된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時代의 開拓者들의 業績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學者의 役割은 언제나 많은 費用이 들게 마련인 낡은 經驗的 接近方法과 個別인 作業에 대신할 一般인 法則을 案出하는 것이다.⁽¹⁷⁾

이와같은 對立인 두 接近方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든지 어느 것이 낫다든지 하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各各의 狀況에 따라서 構造파라미터는 安定的일 수도 있고 不安定的일 수도 있다. 더욱이 비록 安定的은 아니라도 合理的인 分析을 시작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構造파라미터의 推定이 必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먼저 構造파라미터의 分析을 하고 나서 뒤따라서 그 構造의 變化類型에 관한 研究를 續行하지 않는다면 먼저 推定한 파라미터에 基礎한 豫測이나 政策決定은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가능성도 많다. 더욱이 決定過程 속에 伸縮性을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伸縮性의 정도는 一次인 決定을 내리는데 使用되는 構造파라미터의 推定值의 不確實性에 比例하여야 한다. 決定過程의 局面에 따라 不確實性도 달라지겠는데 물론 이것은 삽입될 伸縮性의 정도에 反映되어야 한다. 요컨대, 經濟政策의 決定方法에 관한 理論은 아직도 매우 粗野한 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使用하는 사람이 折衷의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떤 立場을 취하든지 간에 地域經濟學이 現在로서는 地域의 變化類型의 行動法則에 관한 根本인 理解라는 問題보다는 分析의 틀을 構成하는데 더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1950年代를 볼 것 같으면 經濟學의 다른 分野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假說의 設定과 檢證이 地域經濟學에서는 드물었다. 즉 地域經濟學에서의 概念的 研究活動은 社會會計 같은 統計資料의 組織 및 提示를 위한 論理的으로 一貫性 있는 表式을 構成하는 것이 主流를 이루어 왔고 規範인 政策處方은 副次的인 것으로 取扱되었다. 理論인 研究에서 提示된 假說은 經濟基地乘數概念처럼 高度로 總計化된 水準의 것이 아니면 너무 抽象的이어서 統計의 檢證을 해 보지 못할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歷史的-行動主義的 性向을 가진 사람들의 研究가 이 假說의 空白을 메우는 극히 重要한 일을 시작하는데 有助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研究는 또 現

(17) J. R. Boudeville, "Frontiers and Interrelations of Regional Planning," paper given at *International Congress on Economic Development* (Vienna, August-September 1962), pp. 11-12; J. R. Meyer, *op. cit.*, p. 259 을 引用.

在는看過되고 있는一般經濟學의理論과思想을地域經濟學에導入하는것이이分野의發展을위하여크게도움을주는契機가될수있음을示唆해주고있다.

VI 結 言

지금까지地域經濟學이政策問題의解決이라는實用主義의性格을강하게띠면서도學問的으로도急速한發展을이룩한諸側面을보아왔다.그러나지금까지의地域經濟學이地域經濟學에서다루어야할問題를均衡있게다루면서發展한것은아니었다.즉지나치게重視하여많은資源과努力을投入한分野가있는가하면전혀손을못댄分野도있었던것이다.또손을댄分野라할지라도아직도많은점에서不完全性を不免하고있다.地域經濟學은앞으로一般經濟學의理論을더욱많이援用하여여기에그에알맞는行動假說을세워이를檢證해나아가는過程을취함으로써크게發展할수있는餘地를남겨놓고있다.

地域經濟學처럼그實用성이強調되는分野에서는實際的인問題의解決에直面하여單純한方法和複雜한方法이있을때複雜한方法을採用할때드는더큰費用이單純한方法을使用할때얻는結果보다改善된結果를얻는데서오는利益을合理化할수있는것인지가重要な問題로登場할수있다.예컨대經濟基地乘數에서얻는結果보다行列乘數에서얻는結果가그精密성에있어서어느정도利益이있는것인가를따져볼必要가있으며여기에統計學의決定理論이導入될수있는餘地가있다.

地域經濟學이오늘날의位置를차지하게된것은複雜하고어려운現實問題를分析的으로解決하는데앞장서서努力해왔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그리하여이러한活動에서큰테두리를定하고方策을마련해준것은무엇보다도큰貢獻이었다고할것이다.그러는데이러한면에서앞으로더좋은貢獻을할수있으려면地域의成長類型,行動類型에관해서더나은理解가있어야할것은두말할것도없다.그러기위하여는一般經濟學에서는一般的으로다루어지고있으나地域經濟學에서는별로다루어지지않았던市場構造,企業家職,公私投資決定기타에관한地方的研究가活潑해야할것이다.

國土가狹小하고外國의경우보다地方的인異質성이거의없다고볼수있는우리나라의경우는國土가廣大한美國이나,南北의經濟의格差가極甚한「이탈리아」처럼一般經濟學에서地域經濟學을分離할必要性이그리절실한것이아니었다고볼수있고그것이우리나라에地域經濟學에대한關心이지금까지별로없게만든큰理由가되었을것이

다. 그러나 經濟開發計劃의 進行에 따라 特定産業의 立地가 地域經濟 및 全國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漸增하고 있으며, 따라서 國民經濟的인 立場에서의 合理的 産業立地를 위하여 地域經濟學의 理論的 뒷받침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全國的인 經濟開發計劃은 實際로 實行을 하기 위해서는 地域開發計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地域開發計劃은 計劃段階에서는 그것이 地域段階에서는 그것이 地域經濟厚生에 미치는 直接 및 間接의 效果를 豫測하는 일이 重要하고 計劃의 執行後에는 그것의 效果를 正確히 測定함으로써만이 앞으로의 政策樹立에 寄與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地域經濟學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經濟開發計劃에서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合理的인 投資는 대단히 重要하다. 鐵道 道路 通信 港灣등의 建設을 함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에 따른 그러한 施設에 대한 需要의 正確한 豫測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豫測의 不正確으로 莫大한 資源의 浪費를 가져온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社會間接投資本에 대한 有限한 資源의 合理的인 配分을 위하여 地域經濟學의 理論 및 手法을 보다 많이 援用할 필요가 있다.

經濟發展過程은 都市化의 過程이라고도 불리우리만큼 經濟發展과 都市化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런데 都市는 그것만이 가지는 特有的 性格이 있다. 즉 大都市로의 人口過剩 集中, 大都市의 여러가지 公害, 交通·通信, 住宅등의 여러가지 問題는 都市化가 進行됨에 따라 점점 더 深刻해 지고 있는 問題이며 이런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地域經濟學의 理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地域經濟學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實用的인 重要性이 앞으로 점점 더해가리라고 推測된다. 地域經濟學이 짧은 時日內에 크게 發展해왔다고는 하나 앞에서 指摘한 대로 아직도 未備點이 많으며 또 그 發展過程은 特定한 政策問題와 關聯되어 왔으므로 分析을 위하여 使用되는 道具도 特定國家 特定地域 特定問題를 염두에 두고 開發된 것이 점차로 一般的인 分析道具로 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地域經濟學의 手法을 援用함에 있어서는 어떤 틀에 無批判的으로 끼워 맞추는 식의 皮相的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解決해야할 問題와의 關聯에서 진지한 研究가 隨伴될 것이 期待된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